

# 박현주식 화끈한 주주환원... 미래에셋증권 시총 40조 돌파

역대 최대 6354억 주주환원 발표  
실적 기대에 금융권 시총 빅4 등극  
AI 격변기 맞아 전략 전환 공식화



미래에셋증권 전경. 작은 사진은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책임자(GSO)의 화끈한 주주환원과 앞을 내다본 투자 해안이 미래에셋증권을 금융권 시총액 '빅4' 자리에 올려놨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46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주주환원을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SpaceX)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회 상장 통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 회장은 "투자의 세계에서 안주는 곧 퇴보"라며 "가장 먼저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과감하게 기회에 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의 성장은 숫자에 그쳐서는 안되며,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객의 노후를 지키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미래에셋증권 시총 '빅4'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전일 대비 5800원(8.64%) 오른 7만2900원을 기록했다. 시총액은 약 41조원을 돌파했고, 국내 시총액 20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보다 시총이 높은 곳은 10위 KB금융(62조원), 15위 삼성생명(49조원), 16위 신한지주(48조원)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과 지난달에 각각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시총을 추월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날 미래에셋증권은 4600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말 소각한 금액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 수준인 6354억원의 주주환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정된 배당총액은 현금배당 약 1744억원(보통주 기준 300원), 주식배당 약 2909억원(보통주 기준 500원 상당 주식)으로 총 4653억원이다. 이는 이사회 전일 증가 기준으로 지난해 현금 배당액 1467억원 대비 세 배 이상 규모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7일이다. 현금 및 주식 배당은 다음달 24일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실적 가운데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금 유출 부담을 줄이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보통주 약 1177만주, 2우선주 약 18만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보통주 및 우선주 약 405만주 등을 소각한 금액까지 합산하면 약 1701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2025 사업연도 총 주주환원 규모는 약 6354억원으로, 당기순이익 약 1조5000억원을 감안했을 때 주주환원 성향은 약 40%다.

블룸버그는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상승이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만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상승 흐름과 함께 증권업 실적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펀더멘털과 투자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한국 증시 밸류업 정책 기대 역시 증권주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SpaceX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회 투자 통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SpaceX 기업공개(IPO) 등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Space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 등에 총 4억달러(약 5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SpaceX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X와 xAI의 통합 기업가치는 약 1조2500억달러(약 180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 ◆박현주 회장 "AI와 함께 미래연다"

박현주 글로벌전략책임자(GSO)는 올해 인공지능(AI) 격변기를 맞아 '제2의 창업'에 준하는 전략 전환을 공식화했다. 자산의 토큰화, AI 기반 자산운용 플랫폼, 이익의 재투자를 축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박 GSO는 올해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파른 변곡점에 있다"며 "자본이 아닌 AI 지능이 생산성을 독점하는 '생산성의 비대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와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 방식의 성실함이나 관성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다.

그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며 미래에셋의 '제2의 창업'을 이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자산의 토큰화와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완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를 출발점으로,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모든 투자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연결해 글로벌 투자 그리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거점에서 리테일 고객 전용 모바일 플랫폼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축은 미국 웰스팩(Wealthspot)의 AI 운용 역량과 미래에셋의 글로벌 플랫폼 결합이다. 박 GSO는 웰스팩이 축적한 AI 기반 운용 지능이 플랫폼과 결합될 경우 미래에셋이 '디지털 자산운용 그룹'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X(Global X) ETF는 이러한 혁신 전략을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유통 채널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박 GSO는 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글로벌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다. 박 GSO는 향후 5년간 그룹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억달러 규모의 영업이익과 투자 회수 자금을 미래 성장 동력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과 유기적 성장을 병행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슈퍼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 지급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종료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앞

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익이나 과징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거래 규모,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점수 방식으로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익 또는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부당이익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소 지급액은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이다.

신고 경로에 따른 지급 제한도 없앤다. 앞으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

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기관별 관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종 제재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납부까지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잡자는 내부자를 깨울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임종석 신영증권 회장(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김정호 대표이사(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장기근속 대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영증권

## 신영증권, '신뢰 중심 경영'으로 새 도약

창립 70주년 슬로건 '종심'

창립 70주년을 맞은 신영증권이 지난 70년간 이어온 '신뢰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56년 설립된 신영증권은 '고객의 신뢰가 곧 번영의 근간'이라는 '신즉근영(信則根榮)'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단기 수익보다는 고객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주력해왔다. 1971년 현 경영진이 인수한 이후에는 55년째 연속 흑자와 배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 속에서 꾸준히 주주 환원을 실천해왔다.

신영증권은 창립 70주년인 올해의 슬로건으로 '종심(從心)'을 선정했다. '종심(從心)'은 논어 위정편의 한 구절로, 70세에 이르면 마음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

영증권은 단순히 업력을 기리는 것을 넘어, 지난 70년간 쌓아온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正道(正道)를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은 별도 대외 행사 없이 임직원들이 함께 회사 역사와 향후 백년을 이어 지켜 나갈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서 및 직원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런 신영인상' 시상도 진행됐다.

'자랑스런 신영인상'은 수익, 혁신, 기업이미지, 조직문화, 윤리, 라이징스타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됐다. 수익 부문에서는 우수한 시장 대응 능력으로 수익을 창출해 낸 파생전략운용부, ESS부, FICC본부, WM사업본부 등 4개 부서 및 본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 메리츠증권, 수소기업 '미코파워' 400억 투자

국내 유일 SOFC 원천기술 보유

메리츠증권은 신기술금융회사 AFWP(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수소 연료전지 기업 미코파워에 400억원을 투자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코파워는 국내 유일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전 공정 원천기술 보유 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블룸에너지 등 약 5개 업체가 상용화 가능한 SOFC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미코파워가 유일하다. 최근에는 발전용 SOFC 설비

의 국산화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며, 정부 주도 신재생프로젝트에 잇따라 참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열과 전기를 활용할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수전해기(SOEC)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돼 100킬로와트(kW)급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실증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하은 기자